

테마칼럼

여성세계

신지브리콜

경제의 눈

문화칼럼

딸들의 교육



김정란 (시인·상지대학교수)

딸들의 교육은 오랫동안 금기였다. 불과 1세기 전에만 해도, '공부하는 여자'는 별종이었다. '신여성'이라고 불리는, 한반도에서 최초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여성들은 그 금기를 깨 제1세대였다. 그녀들은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그 선망 뒤에는 질시가, 그리고 질시를 넘어선, '다른 종류의 인간'에게 느끼는 혐오감까지 도사리고 있었다.

딸들의 교육은 모든 어머니들의 희망이었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자신처럼 무능력한 인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쓰든 교육을 받게 하려고 애써왔다. 그렇게 해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부엌에는 근처에도 가보지 않고' 곱게 성장한 딸-공주의 신화가 만들어졌다. 이 신화는 한국사회 최상층에서 그 절정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머니들은 딸들에게 "넌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그저 공부만 해라"라고 가르친다.

게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머니-노에는 놀랍게도 딸-공주님이 명령하는대로 하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일류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여성이라는 것이다.

성공이 최종목적?

그런 어머니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도 그 교육은 단지 좋은 남편을 만나는데 쓰이는 상징적 표지에 불과했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딸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엘리트가 되게 하고 싶은 것일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여성 개인이 남성들을 누르고 성공하게 하는 것이 최종목적일까? 어머니를 노예처럼 부리며 교육받은 여성이 대체 어떤 새로운 가치를 세상에 가져올 수 있을까?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엘리트들이 상층부를 점하고 있는 상황은 생각만 해도 몸서리쳐진다. 그 엘리트 집단을 여성들이 모두 차지한다고 해도, 삶은 그 실질에 있어 변화가 없을 것이다. 영화 '가타카'에 그려진 무시무시한 디스토피아는 어쩌면 이미 그 프로그램을 작동시키기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갈등 조장세력, 대통령의 말 귀기울이랴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광주 5·18 기념식에서 우리사회의 통합과 화해를 강조하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아직도 반독재투쟁의 시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우리사회는 이미 철저히 민주주의가 정착했으며 남은 과제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활 속에 뿌리내리게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는 참여정부들어 일종의 '언터처블' 집단으로 활동하고있는 사회 갈등 조장세력들이 대통령의 이 말을 제발 새겨 듣고 이른바 '투쟁방식'을 바꿔 보라고 호소하고 싶다. 최근 수년간 우리 사회는 실정법은 물론 헌법질서까지도 자신들의 주장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는 집단의 등장에 시달리고있다. 자신을 민주세력이라고 부르는 그들앞에 의식화되지 않은 국민들은 애써 침묵하고있을 뿐이다. 가까이에는 광택미군기지 반대위와 한미 FTA반대세력이 위기와 갈등을 선전하고 있으며 그전에는 방계장

설치 반대, 새만금 사업 반대등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폭발발발시위를 벌여왔다. 모든 기성질서를 반대하고 투쟁하는 것이 선(善)으로 받아들여졌던 권위주의정권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또 이날 동화혁명당시를 예로 들며 "편협하고 독단적인 사상체계에 빠져 세상물정에 어두웠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은 변화하는 세계의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에 새로운 학문과 사상을 배척하고 그도 모자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까지 빼앗았다"고 말했다. 이 역시 투쟁일변도의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현 일부 좌파 세력을 겨냥한 말로 들린다.

그자신 노동변호사 출신으로서 운동권 세력을 근간으로 집권한 노대통령이 이같은 호소를 한 것은 그만큼 국제질서가 냉각되고, 국가경쟁력이 위기라는 절박함을 보여준다. 좌파의 건장한 각성이 절실한 때다.

부동산 거품론 정부 당국자가 퍼뜨린데서야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부동산 거품론을 잇따라 퍼뜨리고 있다.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장관에 이어 재정경제부 고위 관료들까지 가세해 "강남 지역 주택가격이 앞으로 20~30% 가량 떨어질 것" "하반기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실거래가 등이 시행되므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면 불이익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내놓았다.

정부 당국자가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부동산 거품에 대한 고위 관료들의 '릴레이 경고'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거품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참여정부가 지금까지 무려 35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나 막상 집값 잡기에 자신이 없어지자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해 있다. 정부 말대로 집값이 잡힐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다면 '버블 세븐'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며 특정지역과 나

머지 지역의 대입구도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거품론이 사실이라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부동산 거품 붕괴는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우려됐던 '가게 빛 대란'이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치명타가 된다. 금융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외환위기에 비등가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일본 국민들이 고통스런 15년 세월을 보낸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거품을 부풀리는 것도 경계해야 하나 거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집값도 잡지 못하는 정부가 거품 붕괴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울 것인지의 심스롭다. 지금부터라도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로 가계로 빠져 나간 규모와 담보 비율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정부 당국은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말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無等鼓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마태복음 24:2)

AD 70년, 예루살렘을 정복한 로마의 티투스(Titus F. Vespasianus) 장군은 숭한 유대인들을 살상하고 도시를 철저히 파괴했다. 하지만 그는 제2 성전(聖殿)의 서쪽 벽(壁) 일부는 그대로 남겨 두었다. 로마의 위대 함을 후세에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벽의 규모는 길이 50m·높이 20m. 최고 400t이나 되는 돌로 다듬은 이 웅벽은 해롯이 왕위에 오른 이후 60여 년이나 걸려 지은 것으로, 하루 15단은 아직 매몰된 채로 남아있다.

나라와 형제를 잃은 유대인들은 이 벽 앞에서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 그 슬픈 역사는 2천 년 가까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의 상징이 됐다. 이게 저 유명한 '통곡의 벽'(Wailing Wall)이다.

랍비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느님의 임재(臨在·presence)는 통곡의 벽을 떠나지 않는다'는 신앙을 재확인한다. 유대인들은 벽에 머리를 맞대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애도하고 다시 세울 수 있기를 기도했다.

통곡의 벽



5월 광주의 한이서린 국립 5·18 민주묘지에 최근 '소망의 벽'이 생겼다. 길이 165m 높이 2m의 크기로, 참배객들이 글과 그림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망월지역의 '소망의 벽'은 허삼(盧稔)과 서원(營願)이라는 역사적 의미에서 예루살렘 '통곡의 벽'과 궤(軌)를 같이 한다. (未完)의 과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소망한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기고



현의송

지난 5월 5일 일본의 히구마교수와 진도를 방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진도의 역사문화는 섬 전체가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진도는 글자 그대로 보배로운 섬이다. 문화의 기후 속에 천연기념물 진도개는 그 영민함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예로부터 시·서예·한국화 그리고 많은 민속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다. 고려 삼별초의 대동 항전과 조선시대 성웅 이충무공을 도와 명랑대첩(鳴梁大捷)을 이끌어 국난을 극복했던 호국의 영이 깃들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신비의 바닷길을 보기위해 해마다 일본관광객 500여 명 등 100만 명의 관광객이

가사 중에 있는 한국말 단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래서 일본인들 사이에는 진도에 가 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 함께 한 히구마 교수가 음식점 종업원에게 '진도이야기' 노래를 아느냐고 물었다. 군 전체적으로 그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10명 내외의 거라는 대답을 듣고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없는 것도 만들어서 상품화하려는 게 요즘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 경향이 아닌가. 모처럼 감명 깊은 진도여행을 하고 돌아가면서 기념이 될만한 상품을 구입하려는 것은 세계인의 공통점이다. 윤립산방 남도국악원 어느 곳에서도 기념

지붕없는 역사문화 박물관 - 독립국가 선언

찾아오는 진도다. 문화관광부가 낙조(落照)감상의 최적지로 선정한 '세방낙조'는 환상과 감탄의 극치를 이룬다. 이처럼 진도는 우리의 전통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다. 진도군 전체가 지붕없는 박물관인 셈이다. 그러나 왜 진도의 상징물이 진도대교인가? 지역주민 모두가 모자나 앞치마 등에 진도의 상징물로 다리를 상징한 엠블렘을 붙이고 다닌다. 그렇지만 진도대교보다 더 아름다운 다리는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지역에도 없는 진도에만 있는 것이 진도의 보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진도개도 있고, 진도 아리랑도 있고, 진도이야기 노래도 있는데... 진도이야기(일본에서는 진도모노가타리로 부름)라는 노래는 일본에서 텐도요시미(天童)라는 불가수가 불러서 노래 방송권 1위에 오른 노래로 일본인들 사이에 유명하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품 가게를 찾지 못했다. 물론 구기자, 홍주, 미역, 김 등은 있었다. 그렇게 많은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이 있는 진도인데 왜 기념품이 이렇게 없을까 이해 할 수 없었다. 진도개 열쇠고리, 핸드폰고리, 국악무늬 모형을 넣은 베타이, 스카프, 지갑, 브로치, 유명한 남종화의 복사본 그림을 넣은 기념엽서, 화첩 등도 기념품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다. 민속공연과 국악공연은 DVD로 만들어 기념품으로 팔아도 될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진도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독립국가처럼 지역주민 모두가 긍지를 갖고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독립국선언'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진도군 전체를 '지붕 없는 역사문화 박물관'으로 보존할 것을 제안한다. <일본 히로시마 슈도대학 객원연구원·광주일보 일본통신원>

아파트 뒤편서 담배꽂초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현관을 나서다 머리에 담배꽂이 떨어지는 불쾌한 일을 당했다. 너무 화가 나 곧장 쫓아 올라갔는데 몇 층인지 확인하기 힘들어 포기했다. 흡연구역이 줄면서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가끔 본다. 대부분 창문을 열고 재떨이를 비치해 놓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흡연자들은 창문 밖으로 재를 털고 담배를 그대로 던지는 경우가 많다. 아래층에 사는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는 행동이다. 뒤편에 사는 사람이 담배를 핀 뒤 창문 밖으로 재를 털거나 담배꽂초를 버리면 아래층 베란다로 들어오거나 지나가던 이웃이 맞기도 한다. 아파트 현관 지붕과 화단에는 버린 담배꽂초가 널려 있고도 한다.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조차 뭐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담배를 핀 뒤 뒷처리하는 깔끔하게 하자. <정현창·광주시 광산구 왕동>

기고



김수공

우리나라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면서도 늘 뒷전으로 밀리는 '천박신세'였다. 그러나 여전히 농업은 국민의 먹거리인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1998년 농업각료회의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회원국이 확보해야 할 공동목표로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개방시대를 맞아 위기에 빠진 우리 농업은 그간 2·3차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와 다양한 기능 및 역할을 한 공로를

모 유명 제과회사에서 처음 시작했으며, 최근 많은 기업들이 마케팅 전략과 연계해 데이-마케팅을 도입하고 있다. 1월 1일은 나주에서 배 소비촉진을 위해 제정된 배 데이, 3월 3일은 삼점살 데이, 4월 9일은 토종 화이트(백숙) 데이로 지정됐다. 또 5월 2일은 전농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오이데이와 한국오리협회의 오리데이, 8월 8일은 전라남도가 정한 쌀 데이, 9월 9일은 구구(닭고기)데이, 10월 24일은 애플(사과)데이 등 우리 농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

우리 농업 구하기 - 작은 실천에서부터

인정받아 반드시 구출돼야 한다. 현재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진행 중이다. 한국산에 비해 20~50% 값싼 미국산 농축산물이 관세를 물지 않은 채 들어 올 때, 한국시장과 우리 농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이다. 과연 우리 농축산업을 구하는 방법은 없는가? '농업 구하기'에는 국민 모두가 사소한 부분부터 실천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5월 2일, 농업에서 오리와 오이 소비촉진을 위해 데이-마케팅(Day-Marketing) 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특정한 날짜에 자연스럽게 연관된 제품을 홍보하는 데이-마케팅은 일본의

고자 많은 토종 데이가 제정돼 있다. 아직은 농산물과 관련한 데이 마케팅이 발을 부치기가 힘들지만, 우리 농업과 농촌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농축산물을 FTA 파고 속에서 지켜내기 위한 국민의 농업·농촌사랑 실천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농축산물 토종데이 행사에 적극 참여해 우리 농축산물을 함께 주고 받는 작은 실천이 위기에 빠진 농업을 구하는 소중한 운동일 수 있다. 어린이들에게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일은 미래의 농업과 농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농협전남지역본부 경제본부부장>

월드컵에 가린 지방선거

(투표율부터 높여야)



▲김동국·서울시 중로구 평창동

Table with publication information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